

로버트 치죤 박사, 아모스: 사자가 부르짖으니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요? 6차시 (A): 아모스 7:1-8:3, 심판이 임함 피할 수 없는

로버트 치죤 박사님의 아모스서 강의입니다. 아모스: 사자가 부르짖으니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6차시 (A), 아모스 7장 1절-8장 3절입니다.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아모스서를 계속 공부하면서 7장으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사실 7장, 8장, 그리고 9장의 대부분을 살펴보면 주제적으로 통일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주제가 등장하겠지만, 7장 1절부터 9장 10절까지 이어지는 메시지는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보게 될 핵심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이 책의 앞부분에서 이미 언급되었지만, 이 부분의 초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모스 9장 11절부터 15절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행복한 결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아모스는 심판에 대해 이야기해 왔는데,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심판을 피할 기회, 아니면 적어도 심판에서 살아남을 기회를 주었지만, 우리가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3장부터 6장까지 역전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는 이 책을 긍정적인 분위기로 끝맺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의 백성이 죄를 지어 징계를 받고 심지어 포로로 내쫓기까지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포기하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니요, 그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였고, 다윗에게도 약속을 하셨으며, 자신의 계획을 이루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아모스는 그렇게 끝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모로 흥미로운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장, 총 17절을 두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사실 8장의 처음 세 절은 환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7장과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7장, 1절부터 8절, 3절은 이 부분의 하위 단위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보게 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7장 1절부터 9절까지 세 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저는 이 환상들을 “뒤집힌 세 마리 아기 돼지”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차차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7장 10절부터 17절까지는 선지자와 제사장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8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순서에서 네 번째 환상, 상징적인 정물화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7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어 봅시다. 자, 아기 돼지 세 마리에 대해 기억하시겠지만, 늑대가 돼지들을 쫓고 있고, 돼지들은 각각 집을 하나씩 지었습니다. 하나는 짚으로, 하나는 나뭇가지로, 하나는 벽돌로 지었습니다.

짚집을 지은 돼지에게 늑대가 나타나 잡아먹겠다고 위협합니다. 그러자 돼지는 도망쳐 나뭇가지로 만든 둘째 돼지의 집으로 피신합니다. 늑대는 돼지의 집을 날려 버리고 황폐하게 만들지만, 돼지는 탈출합니다.

그러자 늑대가 다음 집으로 옵니다. 거기에는 돼지 두 마리가 있는데, 늑대는 똑같이 하겠다고 위협하며 그 집을 날려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집은 나뭇가지로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돼지 두 마리는 세 번째 돼지의 집으로 갑니다. 아, 그 집은 벽돌로 만들어졌군요. 그래서 처음 두 집은 완전히 파괴되었지만, 결국 늑대는 세 번째 집을 날려버리려고 하지만 실패합니다.

그래서 심판, 심판, 도피, 구원, 안전과 같은 개념입니다. 이 특별한 환상 이야기에서 심판이 위협을 받지만, 주님께서는 마음을 누그러뜨리셔서 처음 두 환상에는 심판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세 번째 환상에서는 심판이 반드시 옵니다.

숫염소 세 마리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 패널로 된 구조물이죠.

제 말은, 여러분도 이런 이야기들에 익숙하시죠. 진저브레드 맨이 그 예입니다. 하지만 그건 장황한 설명입니다. 세 개의 패널로만 구성된 게 아니니까요. 이런 이야기들은 대부분 세 개나 네 개의 패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진저브레드 맨에서는 그 이야기가 끝없이 이어집니다.

장황한 이야기지만, 결국 진저브레드맨이 먹히기를 바라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들에서는 시작과 반복이 있고, 마침내 절정에 다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적 기록에서도 이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소년 사무엘에게 주님께서 밤에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아” 라고 말씀하시자, 사무엘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엘리가 자기를 불렀다고 생각해서요. 엘리는 “난 널 부르지 않았어.”라고 말합니다. 엘리는 좀 둔감한 편인데, 그렇게 묘사되니까요.

그리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마침내 엘리는 주님이 자신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이번에는 주님이심을 알아차리고 적절하게 응답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세 개의 패널로 이루어진 구조로, 세 번째 패널에서 정점을 이루는데,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었던 예언자 엘리야의 이야기는 병들어서, 자신의 몰락과 병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는 블레셋 땅으로 사자들을 보내 베엘제뱌, 혹은 베엘제뱌를, 혹은 블레셋의 치유의 신 같은 것을 물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들을 가로채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신이 없습니까? 이방 신에게 가서 그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들은 돌아가서 왕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했습니다. 왕은 “그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아, 엘리야다. 그를 데려오너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한 명의 대장과 50명의 부하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건 매우 중요한데, 엘리야는 언덕 위에 앉아 있고, 그들은 여기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어딘가 구덩이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아래를 내려다보며 그에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위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징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권위를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단지 왕의 사자일 뿐입니다. 그들은 왕을 강압하여 왕에게 데려와 왕이 그에게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이 장에서 우리가 보게 될 내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왕을 대신하는 제사장을 만나는 장면에서 말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패널 구조와 우리가 보는 선지자 대 왕의 모티프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선장이 와서 “내려오너라”라고 말하자, 왕이 “내려오너라”라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말하길, “내가 내려오지 않을 거야.” 하지만 “불”이 뭔지 말해주겠어. “야라드” 라는 말이 있는데, “내려오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불이 내려와 이들을 태워버립니다. 이게 첫 번째 패널입니다. 두 번째 패널에서, 왕은 50명을 데리고 다른 사람을 보냅니다.

이 사람은 훨씬 더 거만하고 모욕적이야. 왕이 말하길, 왕이 말하길, 왕은 정말 강조해. 자세히 보면, 언어에 격앙된 느낌이 들어.

좀 바꿔 말하면, 엉덩이를 이리 내려와. 우리가 너를 왕에게 데려갈 거야. 엘리야가 말했어. “말해 줘, 안 내려갈 거야.” 하지만 내려오는 건 불이고, 그들은 불에 타 죽는다.

자, 이제 세 번째 패널입니다. 바로 여기서 일이 벌어지죠.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죠. 세 번째 패널에서 왕은 또 다른 사람을 보냅니다. 그는 손과 무릎으로 기어가며 자비를 구걸합니다.

결국, 왕과 그의 사자들은 요점을 파악했습니다. 선지자는 우리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편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의 권위를 가질 뿐입니다. 선지자는 항상 왕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는 항상 왕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왕께서 저희를 여기로 보내셨습니다. 와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알겠습니다. 가서도 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내려가서 왕에게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패널 이야기의 또 다른 예죠. 음, 우리 문화에서는 우연히도 이런 우화 이야기가 동화에 등장합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도 농담으로 등장하고요. 랍비, 신부, 침례교 목사가 술집에 들어가는 이야기도 있죠.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패널 구조물을 성경 이야기나 예언이라고 주장하는 것에서 보고, “아, 그럴 리가 없어. 이런 종류의

이야기잖아.”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현실에서는 가끔 반복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첫째,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반 파라낙의 구전 문학의 작동 방식에 대해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모로 이야기에 기반을 둔 구전 문학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하지만, 마치 역사 소설처럼 매우 매력적인 방식으로 전달합니다.

맞아요. 엘리야와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그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즉 실제로 일어난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극적으로 몰입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린이 이야기나 농담은 관객의 관심을 끌기 위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농담에 관객이 집중하도록 만들고 싶거든요. 저도 예전에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친 적이 있어요. 솟염소 세 마리나 아기돼지 세 마리가 통명스럽게 말하는 장면을 열렬히 읽어주고, 어떤 사람들은 극적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아이들은 이야기에 완전히 몰입하죠. 그리고 이야기가 강렬해지면서 공감을 얻고, 마지막에는 절정에 다다르게 되죠.

구전 문학의 특징이죠. 아, 성경은 구전 문학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메시지들은 처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읽히지 않고, 귀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저자들에게 실제 일어난 일 그대로 이야기를 전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러한 환상들, 환상들의 순서를 사용하시며, 그분의 인내와 정의를 강조하기 위해 다소 극적인 방식으로 표현하십니다. 그분의 인내는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라고 말씀하시는 반면, 그분의 정의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될 일의 예고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먼저 아홉 구절을 다 읽고, 그 과정에서 유사점, 어쩌면 약간의 강조점, 그리고 극적인 변화에 주의를 기울일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제가 테스트는 드릴 수 없지만, 어떻게 되는지 지켜볼게요.

이것이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여 주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메뚜기 떼를 준비하시는데, 오,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한 시간 안에 농작물을 황폐화시킬 수 있습니다.

왕의 뭉을 다 거두고, 막 수확한 곡식이 돌아나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자기 뭉을 받았는데, 그때 메뚜기 떼가 들이닥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지 않습니다. 그들이 땅을 깨끗이 갈아엎었을 때, 저는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용서를 뜻하는 히브리어 기본 단어인 ‘살라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이는 그들이 잘못을 저질렀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심판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 주님,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냥 용서해 주세요. 야곱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는 너무 작거든요.

조금 전, 엘리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넓은 땅을 가졌는지 생각했지만, 사실, 더 큰 틀에서 보면 그들은 너무 작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음을 돌리셨습니다.

이 표현은 종종 “마음을 바꿨다”로 바뀌 표현됩니다. 저는 이 표현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마치 신이 자신이 하는 일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신께는 계획이 있으십니다.

저는 ‘후회’라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그는 자신이 하겠다고 선언한 일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을 뿐입니다. 이는 예언에서 종종 예언이 우연적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이것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조건부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여전히 조건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나와 니느웨 사람들에게 대해 이야기했는데, 니느웨 왕은 확신이 없었지만 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은 조건부였고,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여기서도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 주님께서 가장 원하지 않으시는 일은 심판을 내리는 것입니다.

한번은 제 동료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주님께서 심판을 위협하실 때는 사실 가장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시죠.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내 날개 아래 모아 우리가 화해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랐던가. 내가 그것을 원하였노라. 거기에는 '동료'라는 그리스어 단어가 쓰였다.

나는 할 것이다. 그것이 내 의지였다. 내 이상적인 의지, 내 선행 의지였다. 하지만 당신은 그걸 원하지 않았다, 친구야. 당신의 의지가 내 의지를 좌절시켰다.

나는 이것을 원했어. 하지만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했지. 그래서 심판이 다가오고 있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지만, 여기서는 기꺼이 마음을 누그러뜨리십니다. 선지자는 심판의 환상이 펼쳐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마음을 누그러뜨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움직이는 그림에 더 가깝다는 것을 알아차리세요. 그것은 영화와 더 비슷합니다. 비전 속에 행동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메뚜기 떼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메뚜기 떼가 땅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감동적인 장면은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단순한 사진이나 스냅샷이 아니죠, 그렇죠? 뭔가 감동적이고, 행동이 담겨 있어요. 그 행동에 끌리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모스도 그 행동에 끌려가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냥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죄인임을 알고,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자격이 있음을 압니다. 하지만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은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패널, 다음 환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주권자이신 주님께서 제게 보여 주신 것입니다, 4절.

주권자이신 주님께서 불 심판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모스서에는 불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불이 너무나 파괴적이라고, 아마도 메뚜기 떼보다 더 파괴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불이 아닙니다.

깊은 바다를 말려 버렸으니, 지중해에서 온 것 같군. 깊은 바다를 말리고 땅을 삼켜 버렸지.

메뚜기 떼가 몰려왔습니다. 이제 두 번째 환상에서 불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 저는 소리쳤습니다. "주권자이신 주님, 간청하건대 멈추십시오."

야곱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너무 작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변화가 보이시나요? 이번에는 '용서하다'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동사로, '멈추다, 멈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정적으로 깊이 빠져들었고, 그의 백성에게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북왕국이지만, 그는 그들에게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이 이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 그만. 그는 그들이 유죄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그들에게 딱칠 결과와 파괴에만 온전히 집중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는 심판의 대상인 그 한 사람에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용서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지만, 이제 그는 감동했습니다.

두 번째 패널에서는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세 마리 염소의 거친 털"처럼, 두 번째 빌리 염소는 첫 번째 염소보다 조금 더 큼니다. 그의 목소리는 첫 번째 염소만큼 수줍어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메시지 중 하나는 주님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뜻을 돌이키실 의향이 있으십니다.

요나가 주님께 "저는 여기에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보통 마음이 누그러지시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단순한 의인화된 표현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일축할 겁니다. 글쎄요, 주님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말 잘 알고 계셨어요. 이건 그냥 의인화일 뿐입니다.

그들은 마치 그분을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요약하며 "당신은 전형적으로 마음이 누그러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면 그분이 어떻게 변하지 않으실 수 있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어떻게 변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까?"라고 말할 것입니다. 제 동료 중 한 명과 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번은 그가 제게 "그분이 어떻게 변하지 않으실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의 자비와 인내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변함없이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불변성은 그분이 로봇 같은 존재라는 뜻이 아닙니다.

불변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학자들, 예를 들어 개혁주의자 브루스 웨어는 이에 동의할 것입니다. 그는 불변성이라는 틀 안에서도 이러한 종류의 양보가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불변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해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음을 누그러뜨리십니다. 그분이 가장 하고 싶지 않은 일은 언약 백성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이 책의 앞부분에서 그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적어도 여러분 중 일부에게는 이런 식으로 끝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다른 전략을 취하십니다. 아모스는 용서에서 멈추기로 옮겨갔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는 심판자보다는 심판의 대상에 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올바른 관점을 갖도록 강요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모스 7장 7절. 세 번째 판, 세 번째 환상. 주님께서는 다림줄을 손에 들고 정확하게 세워진 담 곁에 서 계셨습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주님이 거기 서 계십니다. 수직으로 뻗어 있는 다림줄을 들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벽 옆에 서 있었는데, 주님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아모스, 네가 무엇을 보느냐?" 저는 "주님"이라고 말했을 것 같은데, 다림줄이 그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는 "다림줄?" 이라고 물었습니다. 다림줄이 그의 주의를 끌었던 건 벽이 곧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다림줄을 놓았으니, 더 이상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는 후회가 없을 것이다."

이삭의 산당들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황폐해질 것이다. 내가 칼을 휘둘러 여로보암의 집을 치겠다. 그런데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더 이상 움직이는 그림은 없다.

지금 우리는 감정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당신의 선지자에게 사람들이 왜 용서받아야 하는지 되새기도록 강요하고 계십니다. 그 관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실상 거기에 서 있습니다. 벽이 똑바로 서 있지 않다고 가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벽은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책 전체를 통해 그 벽이 곧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은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미치지 못합니다.

그들은 내가 원했던 모습이 아니야. 내 성약을 따르길 바랐는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 그래서 그들은 마치 굽은 벽과 같아.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가 자신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도록 하였고, 그를 다시금 "주님께 공감하자"라고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심판받는 자들의 상황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도록 말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8장 1절부터 3절까지 또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전기적인 설명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3인칭으로 언급됩니다.

처음 아홉 구절처럼 자전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따라서 아모스가 나중에 이 부분을 삽입했거나, 예언자 공동체에서 아모스를 따르는 사람 중 한 명이 이 부분을 삽입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 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여기서는 아모스가 3인칭으로 언급됩니다.

이것은 자전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전기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주님께서 심판을 내리셔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모스가 제사장과의 이 만남을 통해 "그래, 벽이 수직과 맞지 않아."라고 확신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께서 왜 심판을 내리실지 이해합니다. 더 이상 "용서해라"거나 "멈춰라"라고 소리치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하실 일을 선포할 뿐입니다. 그러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전갈을 보냈습니다.

이 사람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는 북쪽의 왕입니다. 그리고 아마샤는 벧엘의 제사장인데, 아마샤가 설명하겠지만, 그곳은 왕의 성소입니다.

이곳이 왕이 와서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벧엘은 물론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아모스가 이스라엘 한복판에서 당신을 대적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 땅이 그의 모든 말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심장부, 바로 북왕국 남쪽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음모를 꾸몄다고 말하며 비난을 퍼붓는데, 그 표현을 빌리자면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가짜 뉴스입니다.

요즘 이런 말이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칼에 죽을 것입니다. 그는 실제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내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여로보암이 칼에 맞아 죽을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말씀에 하나님의 개입이 전혀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는 여로보암이 죽을 거라고 말하고 있을 뿐이야. 왕께선 이 자가 나를 암살할 계획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 나를 해치려는 쿠데타를 계획하고 있는 거야.

그는 하나님이 칼을 가져오실 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사실입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이 반드시 고국을 떠나 유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얼마 전 우리가 지적했듯이, “반드시 유배를 가거라”는 히브리어로 “갈로 이글레”입니다. G와 L이 당신을 공격한다는 뜻입니다. 그가 앞서 길갈과 함께 사용했던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자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선견자여, 나가라”라고 말했습니다.

선견자, 선견자, 보는 자.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이 단어가 초기에 선지자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고, 아마샤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책의 머리말에서 이것이 아모스가 본 주님의 말씀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 진리들을 전달하시는 데에는 환상적 경험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나가라,

선지자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분이 그 말씀을 경멸적인 의미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그가 드고아에서 올라왔음을 기억하라. 거기서 네 양식을 얻고 거기서 예언하여라.

하지만 선지자들은 종종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대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단지 돈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고 비난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이 북왕국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유다 출신이야. 그냥 거기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예언이나 해. 그리고 여기서 나가.

베델에서 더 이상 예언하지 마라. 베델은 당연히 하나님의 집을 뜻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하나님의 집에서 예언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네. 하지만 그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제 엘리야와 왕, 그리고 왕의 사자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이곳이 왕의 성소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주님의 성소, 왕의 성소, 그리고 왕국의 성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왕으로 대체한 셈입니다. 이곳은 왕의 성소입니다. 왕이 예배하러 오시는 왕의 성소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예배받는 하나님보다 우선권을 가지며, 그것은 왕국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공식적인 왕실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권위에 있어서 주님보다 아래에 있다는 요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주님을 섬깁니다. 그는 왕을 주님보다 더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연히 왕의 제사장입니다.

그는 왕을 위해 일합니다. 그래서 북왕국의 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 불의의 주범입니다.

글쎄요, 아모스는 가만히 앉아서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아모스는 14절에서 아마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현재를 현재로 번역하는 걸 선호합니다. 저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부름받았던 때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지자의 아들도, 선지자도,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자라지도 않았죠. 하지만 저는 양치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화과나무도 돌보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포도원지기 같았죠. 아시다시피, 그는 무화과나무를 돌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전문적인 선지자가 아닙니다. 농업에서 일하던 제 삶에서 이곳으로 와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양 떼를 치던 곳에서 데려가셔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배경 이야기를 아는 것도 흥미로울 것입니다. 아모스는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을 텐데, 주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올라가 백성에게 메시지를 전하도록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농사일에서 불러내어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예언하지 말라.”

이삭의 후손들에 대해 설교하는 걸 멈추세요. 당신은 사실상 제 입을 막고, 저를 취소시키고, 제가 말할 수 없다고 말하려는 겁니다. 이 책 앞부분에서 아모스가 자신의 입장을 변호했던 부분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는 사자가 울부짖었다고 말합니다. 누가 예언하지 않겠습니까? 아모스는 주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는 사자가 울부짖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게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분께서 제게 그분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부르시면, 저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그것이 바로 설득력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네게 하라고 부르신 일을 하지 마라. 예언하지 마라.” 그리고 이 책 앞부분에서 북왕국에 대한 비난이 언급된 것을 기억하세요. 그 비난 중 하나는 주님께서 너희를 위해 선지자들을 세우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시르인들은 선지자들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앞부분에 나오는 이러한 말씀들 중 일부가 여기서 구체화되고 있으며, 아모스가 그렇게 말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전할 말이 있다. 네가 왕에게 내가 칼에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치 내가 칼에 죽을 것처럼 말이다.”

전할 말이 있어요. 정말,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당신 아내가 이 도시에서 매춘부가 될 거예요.

정말,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딸들이 칼에 쓰러질 것입니다. 당신의 땅은 측량되고, 측량되고, 분배될 것입니다.

그리고 너 자신도 이교도 나라에서 죽을 것이다. 그는 분리될 것 같다. 글썄, 그의 자녀들과 분리될 것이다.

그들은 침략으로 죽을 거야. 아내와 헤어지게 될 것 같군. 그리고 자네는 이교도 나라에서 죽을 거야.

문자 그대로 부정한 나라입니다. 히브리어로 테메야(temeyah) 입니다 . 부정한 나라라는 뜻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생각해 보세요. 사제는 의식적으로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 그는 부정한 땅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사제에게 이보다 더 나쁜 일은 없을 겁니다. 게다가 아내를 매춘으로 더럽히는 것도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분명 고국을 떠나 유배될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말을 반복합니다. 네가 나를 대적하고 왕을 하나님보다 높은 방식 때문에 심판이 너에게 매우 가혹할 것이다. 그리고 네 아내는 잡혀가서 창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네 자녀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유배되어 부정한 땅에서 죽을 것이다. 제사장에게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잠깐 멈춰서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구 사회에서 개인주의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품고 있는 질문입니다. 서구 사회는 근본적으로 개인을 중시하는 사회입니다. 왜 그의 아내는 그가 한 일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할까요? 그리고 왜 그의

자녀들은 그가 한 일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할까요? 자녀들은 각자 개별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그분이 제사장을 심판하고 싶으시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약성경을 다룰 때는 사고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조엘 카민스키라는 학자가 히브리어 성경에서 기업의 책임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저는 이 책이 꼭 읽어야 할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의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집단적으로 생각하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분은 한 사람의 죄로 인해 그 집단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아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온 백성을 그 곳으로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외 없이, 여리고에서 얻은 전리품이나 노략물 중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이건 내 거야. 마치 첫 열매 같은 거지. 이 땅을 너에게 줄게. 이게 내 전부야. 그리고 넌 아무것도 아끼면 안 돼.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주님께서 사울에게 “그들을 다 멸하라.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짐승이든 다 멸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어로는 아키람입니다. 띠를 뜻합니다. 띠 아래에 두세요.

그래서 아간은 물건 몇 개를 훔쳐 자기 천막에 숨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에서 벌어진 다음 전투에 나갔지만, 그 전투에서 패배하고 36명이 전사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제정신이 아니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신음하고 탄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당신이 약속을 충실히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왜 우리가 졌을까요? 그리고 주님은, 제가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닥치고 물러나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너희 중 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 계약에서는 한 사람이 모두를 위해, 모두가 한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공동체적으로 보십니다. 한 사람의 죄가 온 나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단결체로 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간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아간이 범인으로 드러나 처형되는 절차를 마련하십니다. 하지만 아간 혼자 처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자녀들도 그와 가족들과 함께 처형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개인적인 사고방식을 버리기 싫어서 “아이들도 관여했을 거야. 동물들도 관여했을까?”라고 말할 겁니다. 그는 가족을 오염시켰죠. 이상하게도 그의 아내가 죽었다는 언급은 없지만, 저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이들과 동물들도 포함되었고, 왜 그랬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아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이들이 있었고, 동물들도 있었습니다. 그는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그는 탐욕스러웠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가끔 하시는 일은 “좋아, 내가 너에게 준 축복, 즉 네 자녀와 가족을 포함한 모든 것을 빼앗아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제 말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하나님의 세상에서는 때때로 그런 식으로 운영됩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사과를 먹지 않았지만, 그게 뭐였든, 어떤 종류의 과일이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담의 죄가 그에게서 나온 인류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바로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사울은 아말렉 사람들을 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한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사무엘기에는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화가 나서 온 땅에 가뭄과 기근이 닥쳐오자 다윗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멸하려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멸하려고 한 것은 나쁜 일이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속여 조약을 맺었지만 주님의 관점에서 조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주님은 그 조약의 보증인이시므로 기브온

사람들은 주님께 가서 자신들을 변호해 달라고 구할 모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거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지만, 사울의 자손 일곱 명, 항상 일곱 명, 거의 항상 일곱 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 앞에서 그들을 동시에 도살해서 주님을 달래겠습니다. 그러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자손 일곱 명을 선택하는 매우 어려운 일을 맡았습니다. 그들이 사울이 한 일에 관여했다는 징후는 없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공동체로서 기업적으로 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문화에 이런 예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 아내는 제가 이런 예를 들 때 싫어하지만, 특히 야구를 할 때 경기에서 정신적 실수를 하면 코치가 우리에게 랍을 뛰게 했습니다. 공을 놓쳤거나 나쁜 던지기를 했다고 해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신체적 실수입니다. 당신은 옳은 일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네 폼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사람들이 나쁜 송구를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고, 공을 튕기는 데에도 이유가 있어. 그래서 네 기술 같은 걸 좀 다듬어야 할 것 같아. 하지만 그게 멍청한 건 아니었고, 정신적인 오류였어. 내 4학년 때 우리 팀에는 정말 좋은 투수가 있었거든. 사실 그 선수는 그해 여름에 레드삭스와 계약했는데, 가끔 제대로 된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어. 땅볼이 1루로 가는 경우가 있었거든. 투수들은 그 상황에서 1루를 커버해야 해. 1루수가 오른쪽으로 가야 할 수도 있으니까. 1루수가 알아서 해.

그는 제때 거기 갈 수 없어. 투수는 저기로 뛰어가야 하고, 1루수가 공을 던지면 투수는 주자를 제칠 수 있어. 1루로 공이 날아올 때면 투수는 그냥 서 있기도 했어. 그냥 서 있기만 했지. 아, 아, 난 뛰어야 하는 거였구나. 닉, 있잖아, 닉의 연습 코치.

그는 달리고 있어요. 몇 바퀴나 돌고 있죠. 투수잖아요. 내야 훈련 같은 건 잘 안 할 거예요. 아마 그럴 필요가 있었겠죠. 어쨌든 코치들은 가끔 경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실수를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고 싶어 하죠.

너에 대한 것만은 아니야, 알았지, 그건 우리가 경기에서 이길 수 없게 만들 수도 있어. 팀 전체가 경기에서 이길 수 있게 만들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네 어리석음은 다른 모든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모두가 슬퍼할 거야 왜냐하면 네가 경기에서 졌고 보통은 팀원들도 마찬가지로 너는 그들을 꾸짖지 않아, 알잖아, 넌 그들을 꾸짖지 않아,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지 토니가 1루를 커버하지 못했고 그래서 우리가 졌다는 걸 그리고 때때로 코치들은 그 점을 강조하기 위해 모두를

뛰게 해 그래, 모두 괜찮아지도록 해 어, 정신적 오류 때문에 경기에서 졌어 너는 누구였는지 언급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경기에서든 한 명 이상일 수도 있어.

그러니 모두가 달리고, 누군가가 팀 게임이기 때문에 왜 달려야 하느냐고 말한다면, 저는 개인의 성과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단체적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특정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과의 관계에 관해서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신이 “나는 개인을 다룬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나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을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권자이신 신께서 이런 일을 할 때 선택하고 선택하는 것은 그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학적으로 까다로운 것 중 하나입니다. 왜 그는 단체적으로 판단하시나요? 왜 그는 아버지의 죄로 아이들을 심판하는가? 사실 저는 이에 대해 글을 썼고 모든 것을 정리하려고 노력했지만 당신이 회사에서 정말 훌륭한 직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회사는 이제 사업이고 모든 사람이 사업에서 자신의 역할을 가지고 있고 당신은 플러스 등급을 받고 급여 인상을 받고 훌륭한 일을 하고 있지만 직장에 와서 “우리는 파산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망하고 있고 모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뭐라고 말한다면, 잠깐만요, 당신은 제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말 훌륭한 직원이기 때문입니다.

글쎄, 아니요, 그게 작동하는 방식이 아니고 당신이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당신은 그것을 이해합니다. 제가 항상 사용하는 스포츠의 예로는 1990년대의 시카고 불스, 불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마이클 조던과 스코티 피펜이라는 그의 측근이 있었기 때문에 챔피언십에서 우승했다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꽤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검은색과 빨간색 옷을 입었고 8년 동안 6번의 챔피언십에서 우승했습니다. 조던이 쉬었던 2년 동안 그들은 우승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야구 선수가 되고 싶다고 결심했을 때 그는 끔찍한 야구 선수였지만, 그건 여담입니다. 당시 NBA 커미셔너였던 데이비드 스톤은 누구였을까요? 그는 NBA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불스에게 챔피언십 트로피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연도를 선택하세요. 패트릭 유잉과 찰스 바클리가 옆에서 지켜보며 이 광경을 보고 있고, 아직 챔피언십 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약간 화가 났습니다 .

그들은 트로피가 없어요. 아마 그가 나눠줄 반지일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줄을 서고 그리고 알다시피 Jud Bushler 가 오고 Steve Curry, 알다시피 덜 알려진 선수들 중 일부 그들은 그들이 좋은 일을 한 이유가 아니에요. 알다시피, 좋은 2군 선수진이 필요하지만 그들이 이긴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모두가 조던과 피펜이 그들을 그곳으로 이끌었다는 걸 알고 있죠. 아마도 나중에 로드먼이 리바운드 머신이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하지만 Ewing과 Barkley가 나오고 David의 차례가 되자 "여기서 뭘 하는 거야?"라고 묻죠.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선수라고, 우리는 미래의 명예의 전당 선수라고 말해요. 우리는 조던을 제외한 그 줄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낫죠. 그래서 우리는 반지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는 가죠.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이건 당신에 대한 게 아니에요. 개인 상을 줄 때 리그 MVP나 퍼스트 팀 올스타 같은 걸 받을 자격이 있을지 몰라도, 이건 개인에 대한 게 아니에요. 마이클이나 스코티에 대한 것만이 아니에요. 모두가 적절한 유니폼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반지를 받는 거고, 당신이 그 유니폼을 입지 못하는 건 그 팀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기업적으로 생각하죠. 사실 신은 종종 그렇게 일하시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에 대한 심판, 제사장들, 제사장의 죄. 신에게 화내지 마라, 이 일을 자초한 제사장에게 화내지 마라, 사울에게 화내지 마라. 기브온 사람들이 이 일들을 처형할 때 신에게 화내지 마라, 다윗에게 화내지 마라. 다윗은 기근을 끝내기 위해 이렇게 해야 했다. 신이 이 거래에서 기브온 사람들의 편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화내지 마라. 자신의 가족에게 이 일을 자초한 자에게 화내라. 신의 잘못이 아니다. 신이 여기서 하는 일은 단순히 내가 내 보호를 빼앗을 것이고, 아시리아인들이 와서 그들이 하는 일을 하게 둘 것이고, 내가 내 보호를 빼앗을 것이고, 그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그들은 당신의 아내를 데려가서 매춘부로 만들 거야 그들은 당신의 아이들을 죽일 거야 그리고 그들은 당신을 끌어낼 거야 음, 그래서 그것은 단지 그들의 죄가 그들에게 가져온 것에 대한 설명일 뿐이고 신은 그냥 물러나서 타락한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 되도록 내버려 두기로 결정했고 타락한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었어 왜냐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신이 그렇게 조작했다는 건 인정하지만, 그는 단순히 심판의 수단으로 아시리아인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야. 그래서 제 생각엔 여기서 멈추자. 우리는 음, 이 구절과 관련된 또 다른 환상이 있어. 8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데, 이건 장의 구분이야. 그래서 여기서 멈추고 다음 강의에서 환상과 그 중요성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자.

로버트 치즈 박사님의 아모스서 강의입니다. 아모스: 사자가 부르짖으니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6차시, 아모스 7장 1절부터 8장 3절까지입니다.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